

제2회 [백범일지] 교육안 공모대회 수상자 소감

박은경 (백범 통일상)

다솜한국학교



우리가 산다는 것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부모님, 스승, 친구, 좋은 책과의 만남 등. 우리가 읽은 백범일지에서는 민족의 스승 백범 김구 선생님이 스승 고능선을 만나 뜻을 정하고, 이봉창, 윤봉길을 만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며 마음 좋은 사람 백범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국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저의 심장을 뛰게 하는 열정을 발견해주시고, 모든 면에서 숭선수범으로 모범을 보여주시며 제게 스승이며 친구가 되어주신 최미영 교장 선생님과 만남, 그리고 사춘기라는 폭풍의 계절을 지나고 있기는 하지만 교사인 제게 눈을 맞추고 마음을 나누며 세상을 함께 읽어나가는 우리 반 학생들과의 만남이 제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아마 이들이 없었다면 저는 백범일지 교육안 공모대회에 도전할 엄두도, 이유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백범일지 교육안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되, 가치관을 세우고 뿌리를 찾는 일에는 보다 깊이 있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활동을 넣고자 노력하며 수업안을 계획하고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움직임을 좋아하는 우리 학생들이 Map과 실물을

활용하여 Mission Map 활동을 할 때에는 한 명씩 외치고, 굴리고, 던지고, 찾고, 달리면서 지명과 이름을 불러보니 3.1 운동, 임시정부, 윤봉길은 더 이상 역사 교과서나 위인전의 간혀있는 지식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역사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올 여름에는 교육안 내용처럼 저도 우리 두 딸들과 함께 부모님의 전기문을 써 볼까 합니다. 말로는 전하지 못했던 기억과 감사와 사랑의 표현 등을 담아 우리 가족의 역사를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저는 우리 반 학생들과 즐겁고도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을 뿐 아니라 저의 두 딸들에게도 엄마가 연구하고 존경하는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백범 김구를 더 알게 하는 시간을 가진 것도 감사한 일인데 귀한 상까지 받게 되니 모든 영광을 용기와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